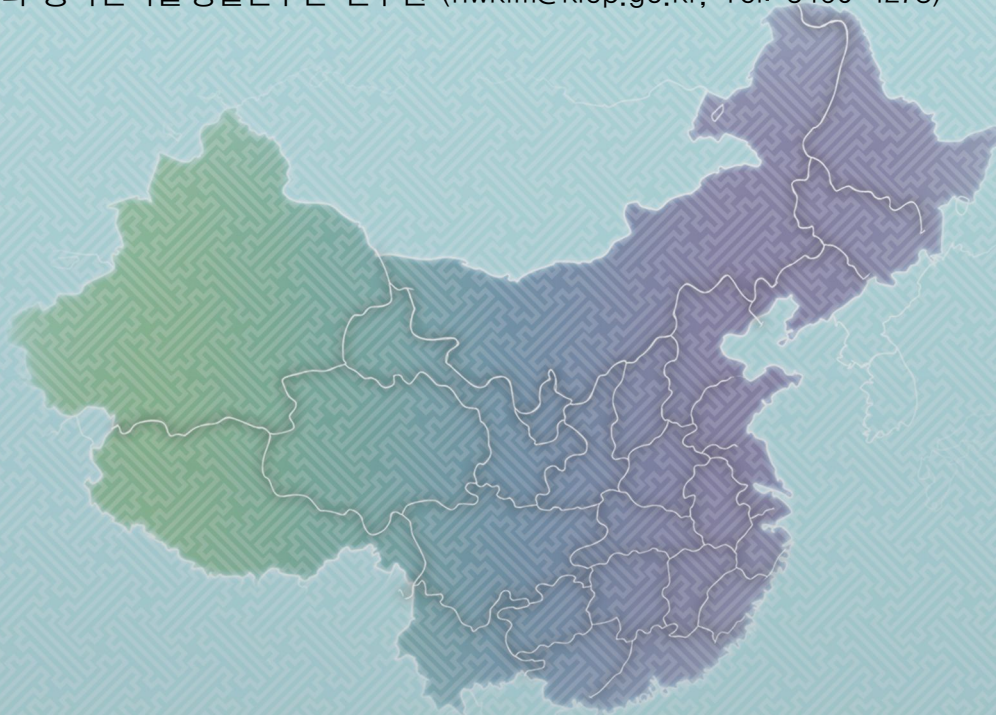


한·중 수교 20주년 지역별 회고와 전망: 지역 총괄

정지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3460-1280)

박진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jhpak@kiep.go.kr, Tel: 3460-1285)

김홍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hwkim@kiep.go.kr, Tel: 3460-1278)



차 례 ●●●

1. 연구 배경
2. 지역별 무역구조 변화
3. 지역별 투자구조 변화
4. 평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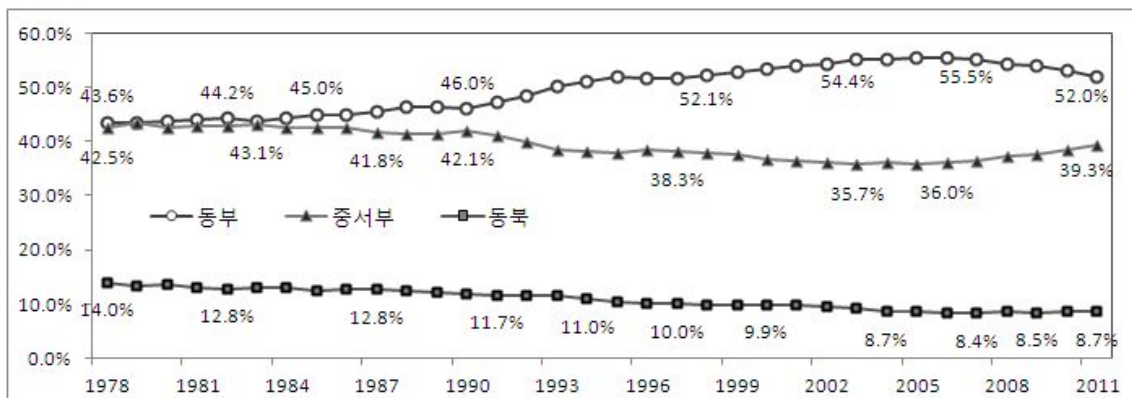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기존의 동부 연해지역 중심에서 중서부 및 동북지역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중국 지역별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은 동부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 대중(對中) 무역 중 동부지역의 비중이 전기·전자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된(83%→90%) 반면, 동북지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서부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함. 단 세계경기 침체기에는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증가함.
 - 한편 대중 투자 중 동부지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78.2%→78.0%)하고, 동북지역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중서부지역의 비중은 확대됨.
- 수교 이후 현재까지 대중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동부와 동북지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남.
 -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는 동부(0.80)와 동북(0.83) 지역이 가장 높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투자감소가 1~2년 후 대중수출 둔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급감이 수출감소로 연결됨.
 - 반면 중서부지역의 경우 투자와 수출 간 상관도가 낮은데(0.52, 0.39), 이는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 투자 지역 및 업종, 수출 지역 및 품목을 다변화해야 함.
 - 동부지역과는 고부가가치 업종 및 관련 품목 중심으로 투자 및 교역 구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서부 지역과는 해당 지역의 발전 수요와 관련된 투자 및 내수시장을 고려한 수출품목 발굴이 긴요함.
 - 또한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 및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1. 연구 배경

■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기존의 동부지역 중심 발전전략에서 중서부 및 동북지역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성장축이 다원화되고 있음.¹⁾

- 1992년 한 중 수교 당시 중국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와 수출산업화를 핵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서부대개발 전략, 2003년 동북진흥전략, 2006년 중부굴기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서부 및 동북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해지역에서 점차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서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GDP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최대수준인 55.5%까지 확대된 후 2011년 52.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서부지역은 36.0%에서 39.3%로, 동북지역은 8.5%에서 8.7%로 늘어남(그림 1 참고).

그림 1. 중국의 권역별 경제(GDP) 규모 비중 변화(1978~2011년)



자료: CEIC.

- 2011년 충칭(16.4%), 쓰촨성(15.0%), 후베이성(13.8%) 등 중서부 지역과 지린성(13.7%), 헤이룽장(12.2%), 랴오닝(12.1%) 등 동북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베이징(8.1%), 상하이(8.2%), 광둥성(10.1%), 장쑤(11.0%) 등 연해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1) 중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에 근거하여 동부, 중부, 서부, 동북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술함. 동부지역은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산둥(山東)·장쑤(江蘇)·상하이(上海)·저장(浙江)·푸젠(福建)·광둥(廣東)·하이난(海南) 10개 성(시), 중부지역은 후베이(湖北)·후난(湖南)·허난(河南)·안후이(安徽)·장시(江西)·산시(山西) 6개 성, 서부지역은 쓰촨(四川)·충칭(重慶)·산시(陝西)·구이저우(貴州)·윈난(云南)·간쑤(甘肅)·칭하이(青海)·네이멍구(內蒙古)·광시(廣西)·닝샤(寧夏)·신장(新疆)·티벳(西藏) 12개 성(자치구), 동북지역은 랴오닝(遼寧)·지린(記錄)·헤이룽장(黑龍江) 3개 성을 포함함.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국 지역별 경제협력은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지역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함.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의 무역·투자 등 민간 경제협력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 2011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 중 동부지역이 90%를 차지하였으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중 82%(누적투자액 기준)가 연해지역에 집중됨.

2. 지역별 무역구조 변화

- 2011년 한국과 중국 각 성(省) 간 무역규모는 1998년 이후 연평균 20.7% 성장하였으며,²⁾ 그중 90.0%로 교역비중이 가장 큰 동부지역과의 교역액 연평균 성장률은 21.4%로 가장 높음.
- 1998년 중국 각 성과의 교역액 합계는 21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2,44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3년간 매년 20.7%씩 증가함(표 1 참고).³⁾
- 2011년 동부지역과의 교역액은 2,202억 달러로 대중 무역의 90%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13년간 연평균 21.4%씩 성장함.
 - 그중 장쑤성과의 교역(577억 달러)이 연평균 31.5%씩 성장하여 2011년 31개 성 중 1위를 기록하고, 전체 대중 무역의 24%를 차지함.
- 중서부지역과의 교역액은 137억(중부 80억, 서부 57억) 달러로 전체의 6%에 불과하며, 연평균 성장률 역시 19% 정도로 전체 평균(20.7%)을 하회함.

- 2) 한국과 중국 각 성(省) 간 무역액은 한국무역협회(KITA)의 중국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국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통계 데이터는 1998년부터 발표됨.
- 3) 한국과 중국(전체) 간 교역규모(A)는 한국과 중국 각 성(省) 간 교역액 합계(B)와 일정한 차이를 보임. 이는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의 간접교역과 무역통계 집계방식(수출은 FOB 가격을, 수입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함.

	(억 달러)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A	수출	119	185	238	498	695	914	1,168	1,342
	수입	65	128	174	296	486	769	716	864
	무역액	184	313	412	793	1,180	1,683	1,884	2,206
	무역수지	55	57	64	202	209	145	453	478
B	수출	150	232	286	622	898	1,122	1,380	1,617
	수입	62	113	155	278	446	739	688	829
	무역액	213	345	441	900	1,344	1,861	2,068	2,446
	무역수지	88	119	131	344	453	382	692	787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표 1. 한국과 중국 지역 간 무역 규모 및 성장(1998~2011년)

	무역액(억 달러, %)			수출(억 달러, %)			수입(억 달러, %)		
	1998	2011	성장률	1998	2011	성장률	1998	2011	성장률
중국 전체	213	2,446	20.7	150	1,617	20.1	62	829	22.0
동부 10성	176	2,202	21.4	135	1,508	20.4	41	694	24.3
베이징	9.0	129.4	22.8	7.1	111.8	23.6	1.9	17.6	18.8
톈진	14.2	175.0	21.3	10.5	128.9	21.3	3.7	46.2	21.4
허베이	4.1	39.3	18.9	1.5	11.0	16.4	2.6	28.3	20.2
산둥	36.0	326.6	18.5	23.4	174.9	16.7	12.6	151.7	21.1
장쑤	16.5	577.0	31.5	11.2	408.2	31.9	5.3	168.8	30.5
상하이	13.9	245.3	24.7	10.7	177.0	24.1	3.2	68.3	26.7
저장	8.7	135.8	23.5	5.7	81.3	22.6	3.0	54.5	25.0
푸젠	10.4	61.1	14.6	9.1	35.8	11.1	1.4	25.3	25.1
광둥	62.7	511.6	17.5	55.2	378.4	16.0	7.5	133.2	24.8
하이난	0.7	1.1	3.6	0.5	0.8	3.6	0.2	0.3	3.6
중부 6성	8	80	19.4	3	36	22.1	5	44	17.7
후베이	1.1	12.9	21.2	0.6	5.7	19.8	0.5	7.1	22.6
후난	1.4	10.7	17.1	0.7	1.9	8.6	0.7	8.7	21.4
허난	1.1	24.4	27.1	0.4	15.5	31.9	0.6	8.8	22.2
안후이	1.7	13.4	17.3	0.7	8.0	20.4	1.0	5.3	14.1
장시	0.6	8.6	22.1	0.2	2.8	21.7	0.4	5.8	22.3
산시	2.2	10.3	12.8	0.1	1.9	25.0	2.1	8.4	11.5
서부 12성	6	57	19.1	2	30	23.8	4	27	15.9
쓰촨	1.1	23.8	26.6	0.4	18.8	34.0	0.7	5.0	16.6
충칭*	0.3*	8.5	39.2*	0.1*	6.3	54.2*	0.2*	2.2	25.5*
산시	1.0	7.0	16.5	0.3	2.2	15.8	0.6	4.8	16.8
구이저우	0.8	0.7	-0.4	0.1	0.1	2.7	0.7	0.6	-0.9
윈난	0.4	1.5	11.6	0.1	0.1	4.1	0.3	1.4	13.1
간쑤	0.5	2.3	12.4	0.1	0.1	0.9	0.4	2.2	13.9
칭하이	0.2	0.2	0.9	0.0	0.1	2.5	0.1	0.1	0.2
네이멍구	0.7	6.2	18.7	0.1	0.2	6.9	0.6	5.9	19.8
광시	0.6	4.8	17.7	0.3	1.5	12.0	0.2	3.3	22.6
닝샤	0.2	1.6	19.2	0.1	0.1	8.3	0.1	1.5	21.9
신장	0.2	0.5	7.0	0.2	0.1	-1.0	0.1	0.4	15.8
시장	0.033	0.000	-36.5	0.032	0.000	-41.6	0.001	0.000	-16.6
동북 3성	23	106	12.6	11	43	11.2	12	63	13.7
랴오닝	14.7	90.4	15.0	8.7	39.5	12.3	6.0	50.9	17.9
지린	3.1	7.9	7.4	0.6	2.7	11.7	2.5	5.2	5.9
헤이룽장	4.9	7.9	3.7	1.4	0.7	-5.1	3.5	7.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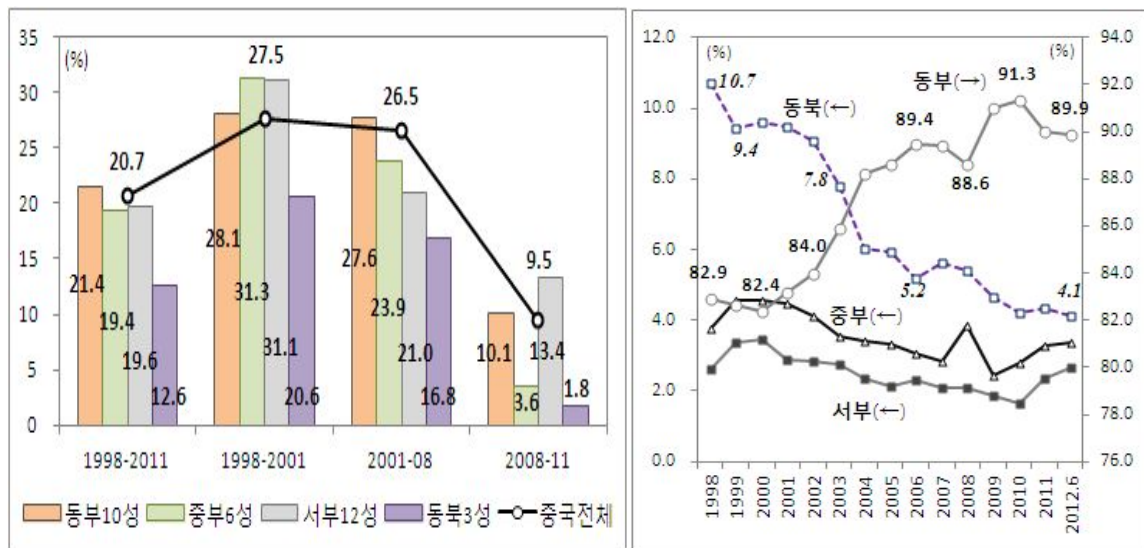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1998~2011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 충칭은 1997년 쓰촨성에서 분리되었으며, 2001년부터 해당 지역의 통계를 따로 발표함. 이에 충칭은 1998년 데이터 대신 2001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역시 2001~11년 10년간의 성장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교역규모는 중부의 허난성(24.4억 달러)과 서부의 쓰촨성(23.8억 달러)이 역내에서 가장 크며, 성장속도는 허난성(27.1%)과 충칭(39.2%)이 가장 빠름.
- 한국과 동북 3성의 교역규모는 가장 더딘 속도(1998~2011년 연평균 12.6%)로 증가하여 2011년 10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중 랴오닝과의 교역액이 약 90억 달러로 역내 최대임.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진 한국과 동부지역 간 교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두 차례의 금융위기 직후 몇 년간 중서부지역과의 교역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반면, 동북지역과의 교역 증가율은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저조함(그림 2 및 그림 3 참고).
- 2001~08년 동부지역과의 무역규모가 연평균 27.6%씩 성장함에 따라 전체 한·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한·중 무역성장(26.5%)의 원동력이 됨.
- 특히 이 기간 장쑤성과의 교역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장쑤성은 2001년 광둥성, 산둥성에 이어 제3위 교역 대상지역에서 2008년 이후 최대 교역 대상지역으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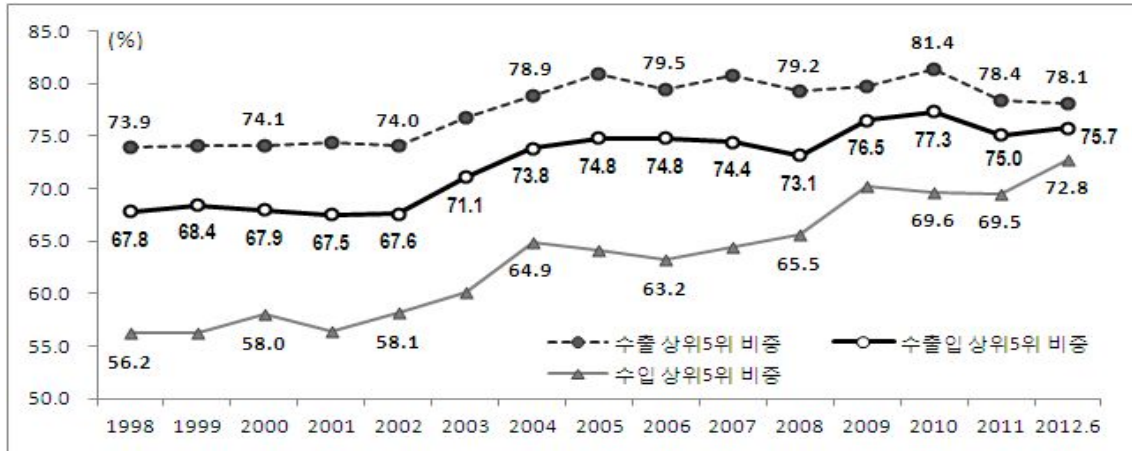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한·중 권역간 무역액 연평균 성장률 그림 3. 한·중 교역 중 각 권역의 비중 변화 (1998년~2011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1998~2001년 중부 및 서부지역과의 교역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31.3%와 31.1%로 가장 높았으며, 2008~11년에는 서부와와의 교역이 매년 13.4%씩 성장함.
- 한편 동북 3성과의 교역규모 증가율은 모든 기간에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낮아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전체 한·중 무역에서 동북 3성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0.7%에서 2011년 4.1%로 축소됨.

그림 4. 한·중 무역 중 교역규모 상위 5위 지역(省)의 비중 변화(1998년~2012년 6월)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한·중 무역은 교역규모 상위 5위 지역(省)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 부문에서 의존도가 더욱 빠르게 확대됨(그림 4 참고).

- 한·중 무역 중 수출입 상위 5위 지역의 비중은 1998년 67.8%에서 2011년 75.0%로 높아짐.
 - 전체 대비 장쑤성과의 무역비중은 1998년 8%(3위)에서 2011년 24%로 급증하여 1위 지역이 됨.
 - 1998년 1, 2위이던 광둥성과 산둥성의 비중은 각각 29%→21%, 17%→13%로 하락함.
- 같은 기간 수출 상위 5위 지역의 비중은 73.9%에서 78.4%로, 수입 상위 5위 지역의 비중은 56.2%에서 69.5%로 증가함.
 -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장쑤성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산둥성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음(표 2 참고).

표 2. 무역규모 상위 5위 지역(省)과 수출입액(1998년, 2011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입				수출				수입			
	1998년		2011년		1998년		2011년		1998년		2011년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1	광둥	63(29)	장쑤	577(24)	광둥	55(37)	장쑤	408(25)	산둥	13(20)	장쑤	169(20)
2	산둥	36(17)	광둥	512(21)	산둥	23(16)	광둥	378(23)	광둥	7(12)	산둥	152(18)
3	장쑤	16(8)	산둥	327(13)	장쑤	11(7)	상하이	177(11)	랴오닝	6(10)	광둥	133(16)
4	랴오닝	15(7)	상하이	245(10)	상하이	11(7)	산둥	175(11)	장쑤	5(9)	상하이	68(8)
5	톈진	14(7)	톈진	175(7)	톈진	10(7)	톈진	129(8)	톈진	4(6)	저장	54(7)
비중	67.8		75.0		73.9		78.4		56.2		69.5	

주: () 안은 해당지역 교역규모의 전체 한·중 무역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무역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품목 중 전자전자, 광학의료정밀기기, 기계류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90% 이상을 동부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플라스틱(HS 39), 철강(HS 72), 섬유(HS 51, 54, 55) 등의 대중 수출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11년 전기·전자(HS 85), 광학·의료·정밀기기(HS 90), 기계류(HS 84) 등 3대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함(표 3 참고).

표 3.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품목 변화(1998년, 2011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1998년			2011년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1	플라스틱(39)	25.4	16.9	전자·전자(85)	549.6	34.0
2	전기·전자(85)	22.4	14.9	광학·의료·정밀기기(90)	252.4	15.6
3	철강(72)	12.6	8.4	기계류(84)	171.1	10.6
4	광물성연료·에너지(27)	10.9	7.3	유기화합물(29)	127.5	7.9
5	기계류(84)	10.3	6.9	광물성연료·에너지(27)	126.7	7.8
6	인조필라멘트섬유(54)	9.2	6.1	플라스틱(39)	115.9	7.2
7	유기화합물(29)	9.1	6.0	일반차량(87)	49.9	3.1
8	지와 판지(48)	7.6	5.0	철강(72)	47.4	2.9
9	인조스테이플섬유(55)	7.3	4.9	동과 그 제품(74)	26.4	1.6
10	양모·수모(51)	6.8	4.6	고무와 그 제품(40)	15.7	1.0
1~10	-	121.6	81.0	-	1,482.6	91.7
전체	-	150.2	100	-	1,616.7	100

주: () 안은 해당지역 교역규모의 전체 한·중 무역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특히 2011년 대중 수출의 34%를 차지한 전기·전자(HS 85) 품목은 광둥(36%), 장쑤(20%), 톈진(13%), 상하이(10%), 산둥(8%), 베이징(5%) 등 동부지역에 약 93%가 수출되고 있음.

○ 중부의 허난(2.5%), 서부의 쓰촨(2.5%), 동북의 랴오닝(1%) 등으로도 일부 수출되고 있음.

- 대부분 동부지역으로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며, 일부 소수 품목은 비(非)동부지역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조제우모·인조제품(HS 67)은 중부에, 항공기 및 동 부품(HS 88)은 서부에, 곡물(HS 10)·육어류조제품(HS 16)·비료(HS 31)·철도차량 및 동 부품(HS 86) 등은 동북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됨.

표 4. 한국의 대중 권역별 수출 상위품목(2011년)

(단위: 억 달러, %)

수출 순위	동부			중부			서부			동북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품목코드	수출액	비중
1	85	510	33.8	85	17.7	49.4	85	15.7	52.8	84	9.0	21.1
2	90	245	16.3	84	4.2	11.7	29	4.0	13.4	85	6.0	14.1
3	84	155	10.3	39	3.0	8.4	84	3.0	10.0	72	3.8	9.0
4	27	123	8.2	72	1.8	5.0	90	2.4	7.9	39	3.3	7.8
5	29	119	7.9	90	1.4	3.8	39	1.2	3.9	90	3.3	7.8
1~5	-	1,153	76.4	-	28	78.3	-	26	88.1	-	26	59.7
전체	-	1,508	100	-	36	100	-	30	100	-	43	100

주: HS 2단위 기준, 코드 품목명은 [표 3] 및 [표 5]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한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부지역에서는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을, 그 외 지역에서는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표 5 참고).

- 1998년 이후 광물성연료·에너지(HS 27), 곡물(HS 10), 섬유(HS 51, 54, 55) 등의 수입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광학·의료·정밀기기 등의 비중이 증가함.

○ 이들 품목은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이며, 한국의 대중 투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광둥, 장쑤, 톈진 등 전기·전자 관련 투자가 많은 지역에 핵심부품 등을 수출하고,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한국에서 다시 수입하는 구조임.

표 5. 한국의 대중 수입 상위품목 변화(1998년, 2011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1998년			2011년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1	전기·전자(85)	9.6	15.3	전기·전자(85)	234.8	28.3
2	광물성연료·에너지(27)	7.2	11.6	기계류(84)	87.8	10.6
3	철강(72)	3.7	5.9	철강(72)	84.4	10.2
4	곡물(10)	3.3	5.2	광학·의료·정밀기기(90)	42.3	5.1
5	인조스테이플섬유(55)	3.2	5.2	철강제품(73)	30.1	3.6
6	의류(편물제 이외)(62)	3.1	4.9	유기화합물(29)	28.1	3.4
7	철도차량(86)	3.0	4.8	광물성연료·에너지(27)	23.9	2.9
8	의류(편물제)(61)	1.9	3.1	선박구조물(89)	20.7	2.5
9	기계류(84)	1.7	2.8	의류(편물제 이외)(62)	18.7	2.3
10	어패류(03)	1.7	2.7	무기화합물(28)	17.8	2.1
1~10	-	38.3	61.5	-	588.5	71.0
전체	-	62.3	100	-	829.2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대(對)동부지역 수입품목은 기술수준이 높은 가공을 거친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철강(HS 72), 광물성연료·에너지(HS 27), 무기화합물(HS 28) 등 원자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표 6 참고).
- 대동부지역 수입상위 품목 중 전기·전자(HS 85), 기계류(HS 84), 광학·의료·정밀기기(HS 90)의 수입액이 해당 지역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6. 한국의 대중 권역별 수입 상위품목(2011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동부지역			중부 6성			서부 12성			동북 3성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품목코드	수입액	비중
1	85	226	32.6	72	13.6	30.8	72	7.6	27.8	72	10.7	16.9
2	84	81	11.7	27	4.2	9.5	27	3.2	11.6	62	7.4	11.7
3	72	52	7.5	28	3.7	8.3	28	2.0	7.2	85	6.0	9.5
4	90	41	5.9	81	2.1	4.7	38	1.5	5.3	27	4.6	7.2
5	73	27	3.9	29	2.0	4.6	84	1.2	4.3	84	4.1	6.4
1~5		428	61.7		26	57.9		15	56.2		33	51.8
전체		694			44			27			63	

주: HS 2단위 기준이며, HS 코드 품목명은 [표 3] 및 [표 5]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3. 지역별 투자구조 변화

- 한·중 수교 이후 2011년 말까지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규모는 총 359억 달러이며, 이 중 82.2%가 동부지역에 투자됨(표 7 참고).

-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산둥성(82억 달러), 장쑤성(82억 달러) 및 베이징(41억 달러)으로 이들 3개 성·시에 대한 투자비중이 중국 전체의 57%에 달함.
- 반면 중부와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각각 전체의 3.9%와 1.4%로 미미한 수준임.
- 동북 3성에 대한 투자비중은 12.5%로, 랴오닝성(9억 달러)과 지린성(2억 달러)은 한국의 투자 대상지역 중 각각 4위 및 9위를 차지함.

표 7. 한국의 중국 지역별 직접투자 현황(1992~2011년)

(단위: 만 달러, %)

	1992년		2001년		2011년		누적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순위)
중국 전체	14,113	100	64,651	100	357,181	100	3,593,261	100
동부 10성	11,141	78.9	54,526	84.3	278,434	78.0	2,952,320	82.2
베이징	2,725	19.3	2,423	3.7	23,243	6.5	409,768	11.4 (3)
톈진	797	5.6	11,093	17.2	25,437	7.1	291,251	8.1 (5)
허베이	439	3.1	640	1.0	1,100	0.3	44,769	1.2 (11)
산둥	4,940	35.0	20,404	31.6	71,290	20.0	816,217	22.7 (2)
장쑤	434	3.1	8,624	13.3	67,536	18.9	817,188	22.7 (1)
상하이	493	3.5	3,502	5.4	29,261	8.2	232,336	6.5 (6)
저장	236	1.7	4,244	6.6	13,790	3.9	131,105	3.6 (8)
푸젠	222	1.6	288	0.4	2,809	0.8	19,921	0.6 (15)
광둥	856	6.1	3,309	5.1	43,810	12.3	183,434	5.1 (7)
하이난	0	0.0	0	0.0	157	0.0	6,331	0.2 (21)
중부 6성	9	0.1	3,013	4.7	13,356	3.7	141,077	3.9
후베이	0	0.0	2	0.0	50	0.0	11,590	0.3 (19)
후난	0	0.0	2,844	4.4	8,000	2.2	54,391	1.5 (10)
허난	0	0.0	104	0.2	826	0.2	8,322	0.2 (20)
안후이	0	0.0	7	0.0	4,072	1.1	14,999	0.4 (18)
장시	9	0.1	14	0.0	403	0.1	32,531	0.9 (12)
산시	0	0.0	42	0.1	6	0.0	19,244	0.5 (16)
서부 12성	0	0.0	508	0.8	5,564	1.6	50,882	1.4
쓰촨*	0	0.0	37	0.1	4,577	1.3	19,172	0.5 (17)
산시	0	0.0	18	0.0	15	0.0	2,386	0.07 (24)
구이저우	0	0.0	62	0.1	0	0.0	1,772	0.05 (25)
윈난	0	0.0	26	0.0	42	0.0	3,196	0.09 (22)
간쑤	0	0.0	11	0.0	6	0.0	3,024	0.08 (23)
칭하이	0	0.0	0	0.0	36	0.0	203	0.01 (26)
5개 자치구	0	0.0	355	0.5	888	0.2	21,130	0.6 (14)
동북 3성	2,962	21.0	6,604	10.2	59,827	16.7	448,981	12.5
랴오닝	1,585	11.2	4,210	6.5	50,463	14.1	336,344	9.4 (4)
지린	285	2.0	2,197	3.4	8,906	2.5	80,267	2.2 (9)
헤이룽장	1,093	7.7	197	0.3	458	0.1	32,370	0.9 (13)

주: 서부지역 5개 자치구는 네이멍구, 광시, 닝샤, 신장, 티베트.

* 대쓰촨성 직접투자에는 충칭에 대한 직접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 시기별로 한국의 대중 투자는 한·중 수교 및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신속히 확대된 반면, 두 차례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전 기간에 걸쳐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함.

- 1992~2011년 전 기간에 중서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중부 47%, 서부 25%)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가 작아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1992~97년 중국 4대 권역에 대한 투자가 모두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부 및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149%와 144%에 달함(그림 5 참고).
- 이는 수교 첫해인 1992년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규모가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이기도 함(그림 6 참고).

그림 5. 시기별 대중 투자 연평균 증가율
(1992~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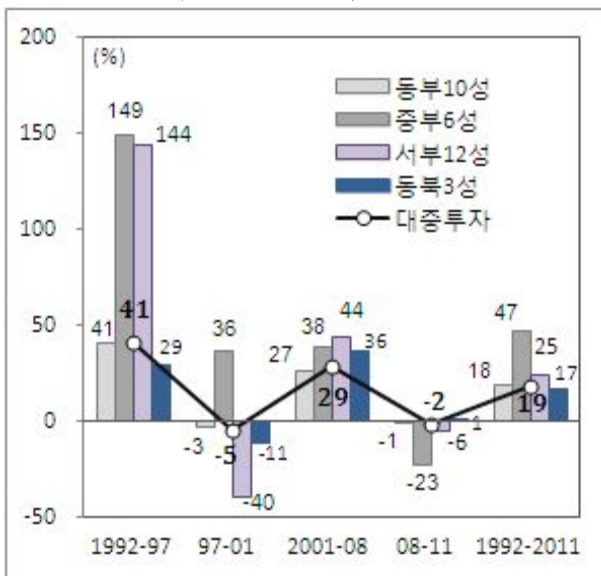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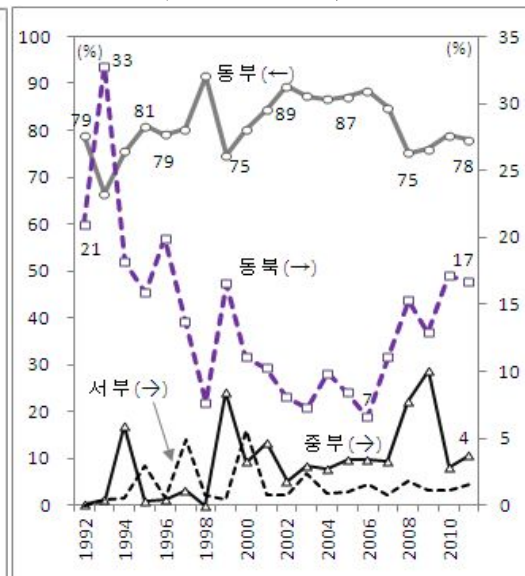


그림 6. 대중 권역별 투자비중 변화
(1992~2011년)



주: 1992년 서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실제 투자액은 0으로 연평균 성장률 계산이 불가능해 1993년 투자액(107.5만 달러)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2001년 4대 권역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이전 시기(1992~97년)에 비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중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남.
- 중부지역 후난성에 대한 투자가 1997년 6만 달러에서 2001년 2,840만 달러로 연평균 367% 증가함. 투자 증가분의 대부분은 LG필립스의 투자에 기인함.
- 동부의 장쑤, 산둥, 베이징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10.5%, 7.6%, -21.9%임.
- 2001년 이후 중국 4대 권역에 대한 투자는 모두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감소함.

■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투자구조는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표 8 참고).

- 1992~2011년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체의 79%에 달함.
- 중국 각 지역에 대한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부와 중부가 각각 83%와 84%로, 서부(62%) 및 동북(51%)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
- 동북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41%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표 8. 한국의 대중 권역별 투자 업종별 비중(1992~2011년)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중국 전체
제조업	82.9	84.1	62.1	51.1	78.9
서비스업	14.5	2.3	26.6	40.8	17.3
기타	2.6	13.6	11.3	8.1	3.8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 세부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투자 상위 업종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서비스업, 자원 관련 제조업과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표 9 참고).

- 대중 투자 1위 업종인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23%로, 2위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보다 월등히 높음.
- 대중 투자 상위 15대 업종 중 금융업(7위), 소매업(10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조업종임.
- 대중 투자 업종 3위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1위인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에 대한 투자 중 각각 99.2%와 93.1%가 동부지역에 집중됨.
- 한편 대중 금융업 투자 중 38% 이상이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 중 절반가량이 중부와 동북지역에 집중됨.

표 9. 한국의 대중투자 상위 업종 및 권역별 비중(1992~2011년)

순위	대중 투자(만 달러, %)			권역별 투자비중(%)			
	업종	금액	비중	동부	중부	서부	동북
1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816,552	22.8	93.1	2.1	0.7	4.0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4,760	9.4	90.7	1.7	1.3	6.3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2,206	5.4	99.2	0.7	0.1	0.1
4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79,977	5.0	87.7	3.2	2.7	6.5
5	1차 금속 제조업	163,004	4.6	87.7	0.9	0.5	11.0

표 9. 계속

순위	대중 투자(만 달러, %)			권역별 투자비중(%)			
	업종	금액	비중	동부	중부	서부	동북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57,611	4.4	85.5	0.4	0.5	13.5
7	금융업	136,752	3.8	61.7	0.0	0.1	38.2
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26,241	3.5	91.5	0.5	1.0	7.0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3,905	3.5	66.6	26.4	0.5	6.6
10	소매업(자동차 제외)	116,076	3.2	92.9	0.2	1.3	5.6
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1,069	3.1	51.7	24.1	0.6	23.5
12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110,990	3.1	81.5	0.3	0.1	18.0
13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2,967	2.9	88.0	10.2	0.0	1.8
14	식품 제조업	101,020	2.8	78.0	1.8	5.9	14.3
15	기타 제품 제조업	78,300	2.2	84.7	2.5	3.5	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 중국의 각 권역에 대한 한국의 주요 투자 업종을 보면, 동부지역에서는 기술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중서부지역에서는 현지 자원 활용 업종이, 동북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표 10 참고).

-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동부지역의 3대 투자 업종은 △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이에 대한 투자비중이 42%에 달함.
 -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에 대한 투자 중 50%가 장쑤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둥성과 광둥성에 각각 15%와 12%가 분포함.
- 중서부지역은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 및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음.
 - 중부지역의 경우 1위 투자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2%)을 비롯하여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 등 자원 관련 업종이 10대 업종에 포함됨. 서부지역 역시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이 투자 10대 업종에 포함되어 있음.
 - 중서부지역도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에 대한 역내 투자비중이 높으나 그 규모는 작은 편이며, 식품·음료·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서부지역의 경우 숙박업, 도소매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투자비중이 높는데, 이는 서부에 대한 투자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임.
- 동북지역은 금융업(12%), 전문서비스업(9%)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역내 투자비중이 가장 높음.
 - 중국 금융업에 대한 투자 중 23%가 지린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2010년 하나은행이 지린은행(지린성 국유은행) 지분의 18%를 인수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한 데 기인함.

표 10. 한국의 대중 권역별 상위 10대 투자 업종(1992~2011년)

(단위: 만 달러, %)

순위	동부			중부		
	업종	투자액	역내비중	업종	투자액	역내비중
1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760,594	25.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672	23.2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641	1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6,800	19.0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0,697	6.4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17,201	12.2
4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57,833	5.3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3,065	9.3
5	1차 금속 제조업	142,941	4.8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460	7.4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4,786	4.5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721	4.1
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15,481	3.9	음료제조업	5,719	4.1
8	소매업(자동차 제외)	107,824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642	4.0
9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0,654	3.1	의약품 제조업	2,517	1.8
10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90,490	3.1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	2,332	1.7
합계	-	2,094,939	70.7	-	122,129	86.6
순위	서부			동북		
	업종	투자액	역내비중	업종	투자액	역내비중
1	숙박업	6,876	13.6	금융업	52,260	12.4
2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6,109	12.1	전문서비스업	38,150	9.0
3	식료품 제조업	5,962	11.8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32,648	7.7
4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784	9.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6,100	6.2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82	8.6	부동산업	24,970	5.9
6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	3,269	6.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1,337	5.1
7	기타 제품 제조업	2,780	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096	5.0
8	소매업(자동차 제외)	1,544	3.0	종합 건설업	21,061	5.0
9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41	2.6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20,024	4.7
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288	2.5	1차 금속 제조업	17,860	4.2
합계	-	38,332	75.7	-	275,506	6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 시기별로 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한 반면, 2001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표 11 참고).

-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은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의 대중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 이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됨.
-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이 금융위기로 인한 대중 투자둔화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임.

- 한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됨.
- 금융업 투자비중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해당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급증하였으며(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 밖에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11. 시기별 주요 대중 투자 업종의 비중 변화(1992~2011년)

순위	업종 \ 시기	1992~97년	1998~2001년	2002~08년	2009~11년	1992~2011년
1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15.3	28.2	22.1	26.9	23.1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6	7.3	10.6	8.6	9.5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3.8	4.8	8.0	5.4
4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2	5.5	5.0	5.3	5.1
5	1차 금속 제조업	4.9	2.2	5.2	3.8	4.6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0	8.3	4.2	3.2	4.5
7	금융업	0.0	0.0	4.6	4.5	3.9
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9.7	4.9	3.2	1.9	3.6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7	9.8	2.7	2.6	3.5
10	소매업(자동차 제외)	2.8	2.8	3.3	3.6	3.3
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	0.9	4.3	2.1	3.1
12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8.5	3.9	3.1	1.3	3.1
13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4.4	2.9	2.7	2.9
14	식료품 제조업	5.0	3.2	2.7	2.4	2.9
15	기타 제품 제조업	5.1	3.3	1.7	2.1	2.2
16	전기장비 제조업	1.8	1.5	1.9	2.3	2.0
17	종합 건설업	4.1	2.1	2.0	1.1	1.9
18	도매 및 상품중개업	0.7	1.2	1.9	2.5	1.9
19	전문서비스업	0.0	0.0	0.8	4.8	1.7
20	부동산업	0.0	0.0	1.8	0.9	1.3
제조업 전체		89.5	93.1	78.4	77.0	78.9
서비스업 전체		5.1	4.3	17.6	21.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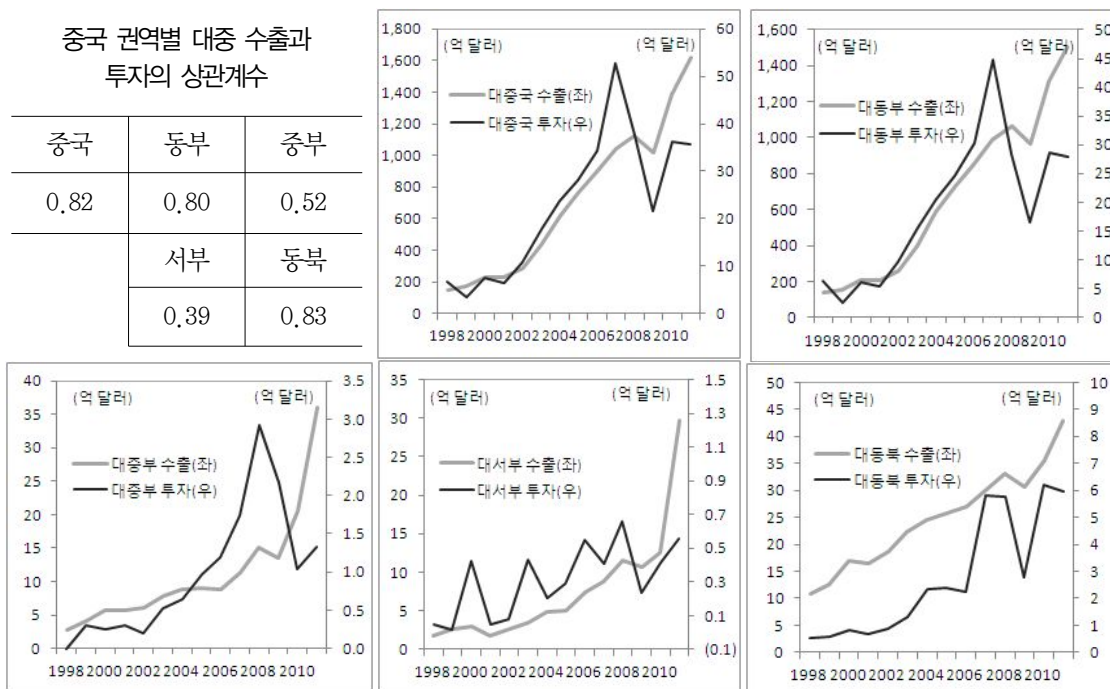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4. 평가

■ 한국의 대중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동부지역과 동북지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남(그림 7 참고).

- 1998~2011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2로 매우 높음.⁴⁾
 -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대중 투자가 감소되자 1~2년 후 대중 수출도 둔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중 투자가 급감하자 대중 수출도 감소하였음.
 - 최근의 대중 수출둔화 추세 역시 2010~11년 대중 투자가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특히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 간 상관계수가 0.83으로 가장 높음.
 - 대동북 투자 4대 업종은 금융(12.4%), 전문서비스(9.0%) 등을 비롯하여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7.7%)과 운송장비 제조업(6.2%)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21.1%) 및 전기·전자(14.1%) 등으로 투자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림 7. 한국의 대중 권역별 수출과 투자의 상관도(1992~2011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4) 수출과 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t년도 수출액과 t-1년도 투자액의 상관계수를 구함. 상관계수는 상관정도가 높을수록 1에 근사함.

- 특히 생산자 서비스 업종(금융, 전문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제조업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또한 동부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 간 상관관계수 역시 0.80으로 매우 높음.
 - 대중 투자 1위 업종인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 투자는 동부지역, 특히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한 장쑤성 등 화동지역과 광둥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중 수출 역시 전기·전자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장쑤, 광둥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음.
 - 전체 대중 투자 중 전자·통신·음향기기 제조업의 47%가 화동지역에 집중되었고, 2011년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34%를 화동지역으로 수출함.
- 반면 중부 및 서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수출 간 상관관계수는 각각 0.52와 0.39로 상관도가 비교적 낮음.
 - 이는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동부 및 동북지역 투자에 비해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연해지역에 비해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관련 물류비용이 수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 등 민간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한국의 대중 무역 중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82.9%에서 2011년 89.9%로 높아진 반면, 동북 3성의 비중은 10.7%에서 4.1%로 감소하였고, 중서부지역의 비중은 6.4%에서 6.0%로 보합세를 유지함.
- 다만 세계경기 둔화와 더불어 중국의 수출이 저조해지면서 재수출용 수출이 많은 동부지역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내수용 수출이 많은 중서부지역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동부지역과의 교역비중이 91.0%, 중서부와는 4.4%였음.
- 한편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8.2%에서 2011년 말 현재 7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의 비중은 21.0%에서 16.7%로 감소하였고, 중서부지역은 0.1%에서 5.3%로 증가함.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 투자 지역 및 업종, 수출 지역 및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역과는 고부가가치 업종 및 관련 품목 중심으로 투자 및 교역구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서부지역과는 해당 지역의 발전 수요와 관련된 투자 및 내수시장을 고려한 수출품목 발굴이 긴요함.
 - 중서부지역은 수출 중심의 발전전략보다는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부지역에 비해 해외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동부지역의 임금 상승, 가공무역 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임가공기지로서 동부지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대체 투자지역 또는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 및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야 함.
 - 중국 중앙정부는 중서부 및 동북의 16개 지역을 중심으로 SOC 건설 확대, 중대형 프로젝트 우선 배치, 동부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 등을 추진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우리나라와 중국 중서부 및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 전략은 각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중 한국과의 협력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중서부지역은 각 성의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어 각 도시군의 거점도시와 중점 산업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 동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첨단 IT 제조, 섬유 및 식품가공 등 제조업이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바, 중서부 거점도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관련 제조업의 진출이 유망함.
 - 이 밖에 중부지역과는 식품가공 및 개발, 서부지역과는 자원개발 관련 업종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북지역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M&A형 투자를 확대하고,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 진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또한 중국의 대북(對北) 교역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북 3성은 우리 기업의 대북한 진출의 교두보로도 활용될 수 있으나 대북 사업의 높은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KIEP